



한국오리협회, 세계아시아양봉대회서 소비촉진 홍보 행사 국내를 비롯한 세계양봉인에게 오리고기 홍보

글·사진 : 편집부

지난 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세계아시아양봉대회 전시부스에 참여한 한국오리협회(이하 협회)는 축산 협회 중 유일하게 시식 및 판매행사를 벌였다. 전시부스에는 이른 아침부터 오리고기를 시식하려는 사람들의 발길로 북적였다. 시식은 오리훈제 및 오리 양념불고기, 오리소금구이 등을 준비하여 전시장을

찾은 관람객들이 오리요리의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.

참관객들은 “식당가격이 비싼 오리를 싼 가격에 사갈 수 있어서 정말 좋다.”, “원산지표시제시행이 됐으니 앞으로 오리고기를 믿고 구입할 수 있겠다.”, “TV에서 오리고기 효능을 보고난 후 돼지고기보다 오리고기를



① 끊임 없는 참가객들의 시식행렬 ② 오리고기 시식 및 판매를 진행(베델농산) ③ POP 이젤 전시 ④ 참가객의 POP 관찰 ⑤ 부스 전면 ⑥ 참가객의 시식

더 즐겨 먹는다.”는 반응을 보였다.
 세계아시아양봉대회에서 많은 내·외국인들에게 국
 내산 오리고기의 우수성과 맛을 널리 알리고자 진행
 된 시식행사는 참가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며, 행
 사를 위해 준비했던 오리요리책자 및 위생장갑 물량
 모두 소진되었다. 오리고기 맛을 본 타지(他地) 참가객
 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오리고기를 주문하겠다고며 회
 원사들의 팸플릿도 꼼꼼히 챙겨갔다.
 부스 한편에 자리한 계절별 오리고기 소비촉진 및 원
 산지표시제 시행, 신이내린 오리고기 등의 POP 이젤
 전시는 평소 타(他)지역대비 오리고기 소비 홍보행사
 활성이 부족한 영남지역 소비자들에게 오리고기 효능
 을 유심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였다.

이번행사에 협조한 베델농산(대표 김성자)은 22년 전
 통을 자랑하는 부산을 대표하는 오리전문업체다. “판
 매보다 중요한 것이 홍보다.”며 “오리고기에 대한 소
 비자들의 인식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
 하겠다.”는 뜻을 밝혔다.
 세계양봉인을 비롯하여 부산시민들의 호응이 뜨거웠
 던 이번행사는 국내를 넘어 아시아까지 국내 오리고
 기의 맛과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였다.
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세계아시아양봉대회가 개최된
 만큼, 이것을 발판으로 국내 오리고기 소비촉진 확대
 는 물론 오리육 수출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시발점이
 되기를 기대해 본다.